

# 여권 잠룡들 광주서 던진 화두에 '호남 민심' 움직임이나

### 이재명 "5·18 같은 대동세상 기본소득 중요...나치전범 지금 추적처벌" 정세균 "광주 항쟁 연구, 정치 전과 제2 아태 평화 재단(가칭) 설립"제안 이낙연, 개헌론 던지며 승부수...“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민심 달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전후에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던진 화두에 호남 민심이 변화를 가져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 기념식 날인 18일 자신의 정채 무기인 '기본소득'과 5·18과 연계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 5개구 구청장들을 가진 간담회에서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가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로드맵'도 제시했다. 5·18 묘지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봉축법요식 합장하는 정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내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날 연 정세균 전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론을 일축했고 5·18과 같은 국가폭력 공소사이에 대해서도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 처벌하고 있다"며 간명하면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재한 미안마인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불의와 독재와 싸우는 세계적인 광주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미안마 시민께 광주에 정신으로 깊은 애도를 보낸다"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립했던 아태 평화 재단과 같은 광주항쟁을 연구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제2 아태 평화 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미완으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주간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간 광주에 머무르며 매일 5·18묘역 묘비담기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구상'을 제시하고 연초 지지를 하려던 원인이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을 제안하며 사실상 대권선언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를 하려던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뒷발인 광주에서 개헌론 승부수로 변곡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개헌론과 사면론 사과가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 총청대망론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며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섰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훌륭할지 모르나 충청도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충청도 이익을 대변한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가 공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충청권 대망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5·18 41주년 기념식을 전후에 호남민심 잡기에 나선 여권 대권주자들이 돌아간 뒤 아직 여론이 남아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던진 화두가 지지를 변화까지 연결될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이준석, 野 대선 경선 토론 팀배틀...“유승민·홍준표 한팀 보고파”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9일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따로 또 같이' 형식의 팀배틀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인들이 대선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본다. 내 원칙은 한가지 '홍행'"이라며 대선 경선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4명으로 추려, 100여가지의 주제를 두고 6번의 팀배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유


승민과 홍준표가 한 편이 되어서 원희룡과 윤석열 팀과 붙고, 어떤 주제에서는 원희룡과 유승민이 한 팀이 되어 윤석열, 홍준표 팀과 붙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밥도 같이 안 먹을 사이일 사람들이 흑시 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협력해야 되고 같이 공부해야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기 보다는 짧은 토론 속에서 협업의 가치, 배려의 가치, 소신과 강단, 다름을 인정할 수 있

는 자세, 틀렸음에 솔직한 모습 등 여러가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따로 또 같이" 라는 기획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필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사람들이 지니어스에 열광했던 이유를 정확히 안다."라며 "유승민과 홍준표가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본 적이 없다. 돌이켜 보면 어떻게 될지 나는 예측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토론이 보고 싶다"고 기대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송영길 "LTV 90% 완화,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

'누구나집 프로젝트' 강조...“집값 6%만 있으면 구입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확대와 관련해 "정부 협의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권상 시상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정부 측에서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 대표는 "지금은 투기지역, 조정 지역, 일반지역에 (각각) 40%, 50%,

60%로 돼 있다"며 "이것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LTV 90%를 실제로 꼭 가능하게 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과 대표 취임 후 부동산 특유 등을 통해 "LTV 90%는 꼭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송 대표는 "10%를 자기가 투자하면 언제든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누구나집 프로젝트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